

전라도



(29) 남종화 거장 아산 조방원 선생 <하>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 덕산

“전통보다 새 것만 좇는 세태 아쉬워”

소치, 남풍을 잇는 남종화의 거장으로 꼽히는 조방원 화백은 스스로 바르지 않고는 남을 감화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 자신의 호를 아산(雅山)이라 했다.

그의 이 같은 신조는 80년 5·18민중항쟁을 겪으면서 그림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낙관을 찍을 때 아산의 ‘雅’를 병어리를 뜻하는 아(阿)나 ‘五十八日’로 바꾸어 사용했다.

특히 묵화에 드러난 산세의 변화에서도 그의 감정 변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두리둥실한 아담한 산세에서 마치 송곳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산세로 변한 그림을 상당수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나뭇잎의 불의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인 것이다.

80년 당시 아산의 집은 전남도청 근처였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 누구보다도 5·18을 자세히 보고 몸으로 겪었던 것이다. 도청 옆 골목 집이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은 그의 집으로 피신하기 일쑤였다.

학살과 폭압에 대한 참담함을 짐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까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다. 지금도 앉고 있는 당뇨는 그때 얻은 것이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실명 상태에까지 이르고도 했다.

“그림의 형태나 색채 구도보다

그림에 담긴 뜻을 더 중시해야”

전두환 정권 시대인 80년 중반에 열린 장우성 화백이 그를 만나러 광주에 왔다. 그를 예술인 회원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였다. 아산은 정중히 사과한 뒤 그를 돌려보냈고, 서운도 거절했다.

이 같이 올곧은 그의 성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보다 내용과 뜻을 중요시하는 그림 세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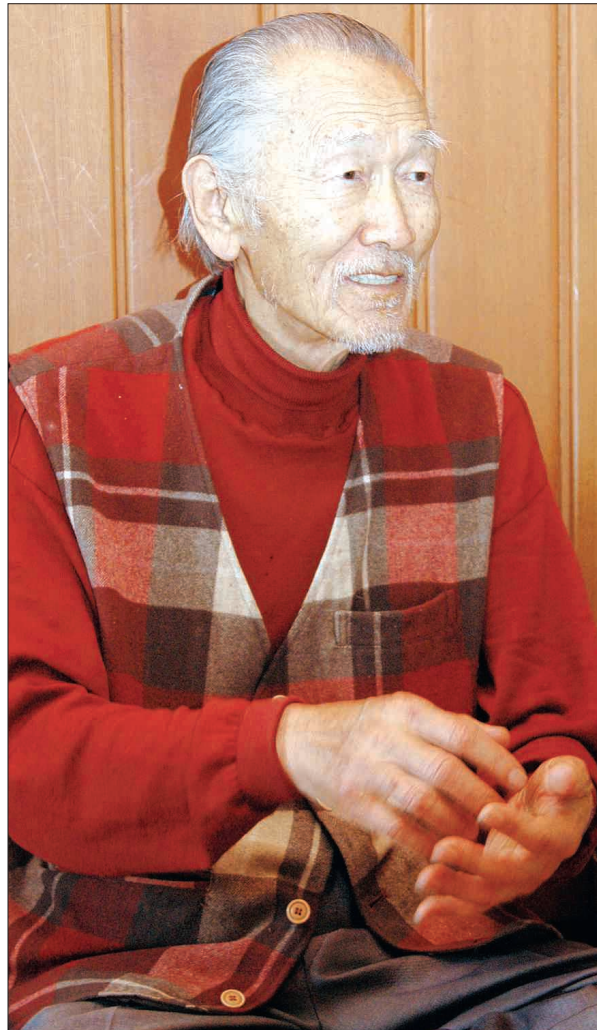
인간을 완성하는 인격도야는 좋은 그림이 원천이며, 그림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평생 외쳐오고 후학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그림은 덕성으로 그려야지 손끝으로 그리는 재간만 가지고는 끝내 완성의 길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모르는 만 명보다 한 명이라도 좋아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훈계한다.

제자들은 대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품평이나 조언을 들으려 그를 찾지만 정작 인생 공부만 하고 돌아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림은 제쳐 두고 삶의 자세에서 시작해 현 정국에 물론 과거 역사를 반추하며 우리가 반성해야 할 생활태도들을 일일이 거론한다.

그는 그림이나 생활자세 모두 정신을 중요시한다. “중요한 것은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냐 죽 기운이 생동하느냐이지. 사형(寫形, 형태 색감 구도)보다는 사의(寫意, 그림의 뜻)를 중시해야 해. 그림 그릴 땐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야 해, 가장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수묵으로 옮기면 그것이 곧 목선이야”



- 약력
▲1926년 무안군 지도면 광리지 월산마을 출생
▲국전(國展) 특선 연 4회(4·5·6·7회) 수상
▲국전 추천·초대작가
▲국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보림문화 훈장 수상
▲전남도 문화상·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

그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날씨가 좀 흐려도 붓을 들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그림은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평론가들이 그의 그림에서는 다른 수묵화에서 보기 드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색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가 색을 멀리하고 무색(無色)의 세계인 먹의 진미(眞味)에 흠뻑 빠져 버리는 것은, 남종사상(南宗思想)의 주축을 이루는 무위자연(無爲自然)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신비는 묵에 있으며, 묵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정신 때문이기도 하다.

“먹 색깔을 차분히 들여다 보면 그 안에 갖은 색이 다 보이



제자들의 모임인 '목노회' 회원들이 지난 2000년 전시회를 마친 뒤, 아산(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의 집 뒷산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지, 수묵화는 농담에서부터 발목(먹물이 번져서 퍼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영감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지”

그림에 대한 절제된 정신과 엄격한 자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1995년의 일이다.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사위 최준호(옥과미술관장)씨가 대학 입학 후 20여년 만에 첫 전시회를 열려고 했다. 전시회를 앞두고 사위는 장인인 아산에게 작품 평을 구했다. 장인은 다른 말 없이 “이것도 그림이냐”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전시 예약이 끝났고, 전시회 예고기사도 신문에 보도된 뒤였다. 최씨는 바로 전시회를 포기했다.

“먹에는 모든 색깔 다 들어있어

수묵화, 예술적 영감 없으면 안돼”

후배들이 전통의 뿌리와 민족 정신을 모르면서 무조건 새 것을 좇는 모습이 가장 안타깝다는 아산은 자신의 집을 찾은 제자들에게 현충사 얘기를 꺼냈다.

현충사 앞길에 완전히 빗맞도록 조소돼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데, 장군이 쉬고 계신 곳을 빗맞도록 뒤덮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민족정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국가에 필요한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요즘에는 너무 가볍고 돈만 좇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너도 잘 안보고 팔 힘이 떨어져 그림 작업이 힘들다는 아산, 임방울의 수궁가와 적벽가를 들으며 휘모리 장단 같은 속도로 붓을 놀리는 신들린 듯한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워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극락강~광주천 범람원내 위치 넓은 백사장 학생들의 소풍터

옛 주요 나루터에는 큰 다리가 놓인다. 최근 광주제2순환도로 개통식이 유덕영업소에서 열렸다. 바로 북면 극락강 나루터에 길이 480m의 덕흥대교가 놓였다. 남쪽 덕산(德山·35m)기슭이 덕흥동(德興洞)이다.

극락강과 광주천 사이 범람원 가운데 면적 6ha에 달하는 덕산이 있다. 주민들은 평야에 있는 덕산의 형국을 호랑이로 보고 있다. 서봉우리로 남동쪽이 머리고, 북서쪽이 꼬리다.

풍영정 칠계(漆川)가 덕파에 부딪치니 그 밑이 덕호(德湖)다. 벼랑에 1937년 지은 나루 오씨 제각 덕호재가 있다.

맑은 물과 함께 백사장에 펼쳐졌으니 물놀이욕장과 화전놀이터가 됐다. 극락강역에서 줄나룻배나, 9번 버스를 타고 온 시내학생들의 소풍터로도 유명했다. 오늘날 송산유원지와 버금간 곳이다.

덕산은 나주오·남평문씨가 많이 살고 있다. 처음 청주한씨가 들어온 뒤, 선조 때 평등에서 나주오씨 와현공(臥軒公) 이수(以壽)가 입촌한다. 이후 남평문·수원백씨가 이어 오면서 동작, 서작, 가운데뜰이 형성되었다.



옛 잠실터에서 바라본 덕흥동 덕산과 서작마을 전경.

열두 당산을 모신 300여 대촌으로 마을 셈이 여섯 곳에 있었다. 454번지는 높이 22m 둘레 5.3m 크기의 수령 400년 느티나무가 서 있다.

동작의 상당으로 할머니다. 근처에서 길이 10.2cm, 너비 2.3cm 크기의 세형동검이 나왔다. 서작의 상당은 팽나무로 활아버졌다. 공통으로 소신을 모신 우당산도 있었다.

갈진 들판의 높이더 땅은 1930년대 상전(桑田)으로 개척되고, 뽕간(蠶室)이 지어졌다. 1066, 1138번지일대 200여 두락은 1932년 종연방직(鐘淵紡績)주식회사가 주인이 되고, 광복 전 비금도 죽림리 출신 정일동(鄭日東)이 관리했다.

953번지에는 1987년 학동에서 이사 온 세광학교가 있다. 이 터는 본디 일야 1천 676평으로 동작 정영철(丁永赫)터였다가 1963년 429번지 오일목 소유가 된다. 오씨는 농토 100여 두락과 방앗간을 운영했다.

1991년 12월 13일 훈연 비행 중이던 공군전투기가 불의의 사고로 동네 앞 논바닥에 추락했다. 블랙박스 따르면 조종사 이상희 중위는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앓, 민가다. 탈출 포기다.”라는 말 뿐이었다.

이듬해 세운 추모비석이 경로당 앞에 있다.

현재 65번과 화순을 원래하는 버스의 종점지대로 7만여 평의 보리밭과 약 3만평의 미나리밭이 눈에 띈다. 극락강변 벼랑에는 김덕령 전설이 깃든 초·치마바위와 함께 상무대 급수장터도 있다. 옛 배후습지는 ‘정구림’이란 땅이름도 남아있다. /김경수 사(행정문화진흥원장)

산행안내
5월 27일(일)
▲한울산악회 봉화 정령산 5월27일(일) 06시30분...
▲광주자연보전산악회 한도 보건도...
5월 28일(월)
▲광주자연보전산악회 한도 보건도...
5월 29일(화)
▲광주자연보전산악회 한도 보건도...
5월 30일(수)
▲광주자연보전산악회 한도 보건도...

월빙시대의 뉴-리더
국기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개강 6월 2일(토) (토, 일 주말반)
* 공무원 가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한빛고시학원
7급 공무원 5만명 증원
이론반 (2개월 완성)
개강 6월 1일

한빛고시학원
7급 공무원 5만명 증원
이론반 (2개월 완성)
개강 6월 1일

BUCKISH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BUCKISH 유 등 점
기성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BUCKISH 빅쉬만의 자랑 비접착 맞춤정장